

뉴스홈 | **최신기사**

이승엽 "변화구기다리는데 직구만...안 맞는 증거"

송고시간 | 2008-11-04 22:04











장현구 기자 기자페이지

이승엽 "변화구 기다리는데 직구만...안 맞는 증거"

(사이타마<일본>=연합뉴스) 장현구 기자 = "변화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직구만 들어오더라고요. 결국 볼카운트에 서 불리하게 몰리고. 안 맞는다는 증거입니다."

4일 일본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세이부 돔에서 계속된 일본프로야구 세이부 라이온스와 일본시리즈 3차전에서 9 번째 타석 만에 이번 시리즈 첫 안타를 신고한 이승엽은 안타 가뭄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보다 뭔가 잘 안 풀리다는 기 색이 역력했다.



이날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상대 좌완 선발 이시이 가즈히사의 몸쪽 떨어지는 변화구를 잡아당겨 우전 안타를 때린 이승 엽은 1-2차전 4타수 무안타(삼진 4개), 볼넷 3개로 침묵했던 데서 일단 탈출했다.

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뜻에서 이날 다시 '농군 패션'으로 나선 이 승엽은 1회 첫 타석에서 2루수 뜬공, 6회에는 중견수 뜬공, 8회 에는 삼진으로 돌아서 4타수1안타로 게임을 마쳤다.

이승엽은 "안타를 때리긴 했으나 만족스럽지는 못하다"고 말문 을 열었다.

이어 "변화구를 밀어칠 생각으로 준비 중인데 오늘은 줄곧 직구 가 초구로 들어왔다. 타이밍을 못 잡다 보니 결국 볼 카운트에서 불리하게 몰렸고 뜻대로 타격하지 못했다"고 설명했다.

실제 이시이는 1회 첫 타석에서 시속 141km짜리 직구를 몸쪽 스트라이크로 꽂아 넣으며 이승엽을 윽박질렀다. 2회 안 타를 맞은 뒤 6회 세 번째 대결에서도 역시 137km 직구로 이승엽의 의표를 찔렀다.

이승엽은 6회초 볼카운트 2-2에서 139km짜리 직구가 들어오자 방망이를 번개처럼 휘둘렀지만 타구는 뻗지 못하고 상 대 중견수 글러브에 잡혔다. 세이부 배터리는 이 때 5개의 볼 중 4개를 직구로 상대했다.

이승엽은 "변화구 타이밍이었는데 직구가 들어와 타격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. 잘 안 맞고 있다"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.

세이부는 4-6으로 뒤진 8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승엽에게 쐐기포를 맞지 않으려고 불펜의 핵 호시노 도모키를 올렸다. 이날 좌투수만 계속 상대한 이승엽은 상대 집중 견제에 대해 "단기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"이라고 순순히 받 아들였다.

4번 알렉스 라미레스가 이날 좌월 솔로포를 쏘아 올려 이번 시리즈에서 2개째 대포를 신고하고 오가사와라 미치히로도 8회 우월 솔로포를 터뜨리면서 요미우리 중심 타자 중 이승엽만 짜릿한 손맛을 보지 못했다.

이에 대해 이승엽은 "팀이 졌다면 부담감이 생겼겠지만 이겼기에 좀 나아졌다. 내일은 내가 잘 때려서 이길 수 있도록 준 비하겠다"며 각오를 다졌다.

cany9900@yna.co.kr





핫뉴스 →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등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한국 유튜버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..

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8/11/04 22:04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			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			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 ▶ 02:22

[영상] 입·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니 [영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

결국 우크라에

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We Do Technology

● 뉴스

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, 2년 1개월만 종료...마스 크는 그대로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...美와 더 강력한 동맹"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"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

뭐하고 놀까? ## 😛 →

유튜브채널 연압뉴스











sns **f**





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/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뉴스+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/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

계약사/제휴문의

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홍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관련사이트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성기홍 [편집인]조채희

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

외국어